

덥다 vs 뜨겁다 vs 따뜻하다

기온이 높다(날씨, 공기) · 온도가 높다(손에 닿는 것) · 기분 좋게 알맞은 온기

날씨와 커피의 온도를 모두 같은 말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지만, 한국어는 구별합니다. 덥다는 주위 공기가 높은 온도인 것이고, 뜨겁다는 손에 닿는 물건의 온도가 높은 것이며, 따뜻하다는 기분 좋은 온기입니다.

한눈에 비교

단어	핵심 의미	뉘앙스	자주 쓰는 형태
덥다	기온이 높다(날씨, 방, 몸으로 느끼는 느낌)	주위의 공기; 대개 불편한 느낌입니다. ㅂ 불규칙: 더워요.	날씨가 덥다 방이 덥다
뜨겁다	온도가 높다(손에 닿는 것)	음식, 음료, 물, 물건, 강한 햇볕. ㅂ 불규칙: 뜨거워요.	물이 뜨겁다 뜨거운 커피
따뜻하다	알맞게 따스하다	기분 좋게 따스한 날씨, 음식, 옷; 따뜻한 마음에도 씁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따뜻한 옷

차이점

- 공기의 온도 vs 물건의 온도.** 날씨가 더워요 ○ / 날씨가 뜨거워요 ×. 커피가 뜨거워요 ○ / 커피가 더워요 ×. 공기를 느끼는 것인지, 물건을 만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따뜻하다는 기분 좋은 쪽입니다.** 따뜻하다는 반가운 온기입니다: 봄 날씨가 따뜻해요, 따뜻한 차. 정도가 지나치면 날씨는 덥다, 음료는 뜨겁다.
- ‘따뜻한 옷’과 ‘따뜻한 마음’.** 따뜻한 옷 ○ / 더운 옷 ×. 사람에게는 따뜻하다만 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씨가 다정한 사람).
- 햇볕은 뜨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덥지만, 피부에 닿는 햇볕의 열기는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햇볕이 뜨거워요 (햇볕이 따가울 만큼 강함)가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덥다	뜨겁다	따뜻하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_____. 에어컨 좀 켜 주세요.	◎	×	×
커피가 너무 _____. 조심하세요.	×	◎	△
봄이 되어서 날씨가 _____.	△	×	◎
추운 날에는 ____ 차를 마시고 싶어요.	×	○	◎
친구가 ____ 말로 위로해 줬어요.	×	×	◎

◎ 자연스러움 ○ 가능 △ 어색함 × 틀림

한 걸음 더

차가운 쪽도 같은 원리입니다: 춥다 (공기가 차가움), 차갑다 (손에 닿는 것이 차가움), 시원하다 (기분 좋게 서늘함). ‘점점 더워지다’라고 할 때는 다음을 붙입니다: -아/어지다: 날씨가 더워졌어요.

연습 문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덥다, 뜨겁다, 따뜻하다

- 한국의 8월은 정말 _____. 35도까지 올라가요.

정답 더워요 — 기온이 높은 날씨 → 덥다.

- 라면이 아주 _____. 입 조심하세요.

정답 뜨거워요 — 델 수 있는 음식 → 뜨겁다.

- 봄에는 날씨가 ____ 꽃이 많이 피요.

정답 따뜻해서 — 기분 좋은 봄 날씨 → 따뜻하다.

- 에어컨이 고장 나서 사무실이 너무 _____.

정답 더워요 — 불편할 만큼 기온이 높은 방 → 덥다.

- 그 선생님은 마음이 ____ 분이예요.

정답 따뜻한 — 다정한 마음은 따뜻하다만 씁니다.

예문

- 한국의 여름은 아주 더워요.
- 방이 더워서 창문을 열었어요.
- 국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 뜨거운 물로 샤워했어요.
- 오늘은 바람도 없고 날씨가 따뜻해요.
-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커피가 너무 더워요.

○ 커피가 너무 뜨거워요.

손에 닿는 것(음식, 음료, 물)의 온도가 높을 때는 뜨겁다를 씁니다.

× 오늘은 날씨가 뜨거워요.

○ 오늘은 날씨가 더워요.

더운 날씨나 더운 방은 덥다고, 뜨겁다는 만지는 것에 씁니다(강한 햇볕을 말하는 햇볕이 뜨거워요는 괜찮습니다).

× 겨울에는 더운 옷을 입으세요.

○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따뜻한 옷’은 따뜻한 옷이고, 덥다는 불편할 정도로 기온이 높다는 뜻입니다.